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지금은 40살이 된 큰 자식 놀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연필깎이를 사달라고 조르는 것을 끝내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어른들로부터 '연필을 예쁘게 깎아야 공부도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던 터라 기계로 깎지 말고 직접 손으로 정성스레 깎아 쓰라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요순시대의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의하면 2015년 까지 초·중·고교의 교과서가 디지털화된다. 기존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참고서, 문제집, 사전, 보충학습 자료가 모두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다. 종이 책이 없어도 공책이나 연필, 지우개, 필통도 필요 없게 된다. 학생들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

정부가 이런 '전략'을 수립한 이유는 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줄여주고, 국가 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 2025년까지 국가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생각해본다. 책가방 무게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면 학생들의 사물함

을 활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국가 경쟁력 문제는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끝없는 정보의 바다 위에 떠있는 단편적인 지식 사이를 메꾸기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검색하는 컴퓨터를 통한 지식 사냥이, 오래 집중하고 깊이 사색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 고유의 창의적 사고를 방해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경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초등학교 때

부터 컴퓨터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진정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학교가 어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인가? 학생과 선생의 인격적인 부딪침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실이 아닌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도덕 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그레도 학교밖에 없다.

학생은 묻고 선생은 답하는 가운데 사람 냄새가 나야 할 곳인데, 사람 냄새는 나지 않고 기계 소리만 가득한 삭막한 디지털

손 글씨

텔 교실에서 어찌 도덕적 불감증이 치료될 수 있겠는가? 학생과 선생 사이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사라진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서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연필로 상징되는 필기도구의 실종이 내어치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손 글씨가 사라진다. 손으로 글씨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글씨에는 그것을 쓴 사

람의 혼이 담겨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손 글씨를 쓰게 했더니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더라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런 판국에 '전략'이 실행되면 학생들의 손 글씨가 어찌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중국 당나라 때에는 과거시험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적용했다고 한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어, 글씨, 판단력을 말하는데 그 중에 '書' 즉 글씨가 들어있다. 글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연필을 예쁘게 깎아서 공책에 또박또박 써내려 가면 성격도 차분해지고 참음성과 집중력도 길러진다. 미친듯한 속도전의 시대에 학생들의 인성을 가라앉히는 데에 손 글씨만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70살이 된 나도 지금 컴퓨터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지만 적어도 초·중·고교에서 만이라도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교실에서 책 대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연필 대신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학생들, 이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인가, 아니면 잘 길들여진 로봇인가.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KTX 광주~목포 구간 저속철 안 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저속철'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철도(KTX)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여수 간 KTX의 설계속도가 전북 익산~여수 구간의 경우 시속 150km에 불과하나 정부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30km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여수 간 소요시간은 기존 설계시간 3시간21분에서 2시간 57분으로 24분 줄어들어 내년엔 열릴 여수박람회의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4년 호남고속철 오송~익산 구간이 완공되면 2시간28분으로 30분이 더 단축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호남고속철의 저속철화를 보는 지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정부가 경부·호남고속철도의 마지막 남은 노선인 광주 송정역~목포 구간에 고속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를 활용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노선을 개량할 경우 속도가 시속 300km에서 188km로 줄어들게 돼 무늬만 고속철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기존 노선 활용 이유로 예산 절감과 경제성을 들고 있지만 경부고속철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경부고속철이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그 일부 구간도 기존 노선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했어야 하지 않은가.

고속철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전남도와 지역민들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 신선'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남해안시대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고속 신선이 훨씬 경제적이다.

경부고속철은 전 노선을 고속철로 하면서 유독 호남고속철만 저속철로 한다는 발상은 호남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속철로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MB 정부 지역 중소기업마저 확대하다니

이명박 정부의 광주·전남 확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사와 국책사업은 물론 중소기업 부문마저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호남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무슨 균형발전이고, 어떻게 소통·통합이 가능하겠는가.

MB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 및 차별 정책은 정부가 다 아는 일이다. 전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행된 광주지역 중소기업 결산금액은 3535억 원이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편이다. 평균 5865억 원에도 못미친다.

이 같은 예산 확대로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가동률 저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 3월 107(조사 대상지역 중 2위)에서 지난 7월 95로 전국 최하위

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가 정부의 무관심과 소외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싹틔움과 같다. 중소기업이 건실해야 경제 전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MB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이처럼 무시하는 행위는 광주·전남에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낸 셈이다.

MB 정부는 지역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국민 통합이나 동반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호남 특히 광주·전남을 '왕따' 시키면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MB 정부는 진정으로 화합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광주·전남 소외 정책을 바로 잡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역민심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대부터 접촉이 빈번했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각각의 지형과 밀접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반도 국가인 한국은 대륙인 중국의 문물을 삼나라인 일본에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했다. 지형적으로 고립상태인 일본은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강력한 민족주의와 함께 배타적 성향을 띄게 됐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한국은 근대 자발적인 문화창출과 함께 가깝고 먼 나라에 이를 전파함으로써 크게 주목받고 있다. 초창기 드라마와 음식 위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됐던 '한류(韓流)'는 K-POP으로 진화해 지구촌 대중문화의 주류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류는 아시아는 물론 중동까지 바람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유럽과 미국까지 맹렬한 기세로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질적인 문화의 전파에는 항상 반작용이 따른다.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미국 중심의 서양문화가 급속하게 유행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고유의 문

화로 되돌아가자는 기류도 생겨났다.

최근 일본 일부에서 반한류(反韓流) 바람이 거세다. 지난 21일 오후 도쿄 시내 오다이바에 있는 민방 후지TV 앞에서 약 6000여명이 이 방송사의 한류 편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후지TV가 한국 드라마 아이돌 그룹의 가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편성한다며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시위에 일장기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고, "천황 만세" 구호까지 터져나와 다분히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우의세력이 관여했음을 보여줬다. 이를 두고 대중에 넘쳐나는 한류에 대한 일본 민

족주의자들의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문화는 어려울까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일본인들이 국수주의 차원에서 다른 문화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다면 고립되기 십상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反韓流



NGO 칼럼

뉴새마을운동으로 선진국을 만들자



신원장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을 위한 지방장관회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되어 농촌의 가난극복을 위해 태동된 참살기 운동이었다.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부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의식개혁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발전하여 농촌은 일약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나아가 새마을운동은 도시지역과 직장, 공장, 학교에서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한국 경제발전은 물론 국력신장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영향력은 우리 국민의 평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운동 4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새마을운동이 59.1%로 1위에 뽑혔으며 '삶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81.2%를 차지했다.

'새마을의 날'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됐다. 국회는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제정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동 법률을 공포했다.

'새마을의 날'이 제정된 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고,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라고 법문에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뛰어넘어 선진화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 못지않게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이념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구조로 국민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이혼율과, 노인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업 및 경제 양극화, 국가안보 문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시대정신인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국민의 뛰어난 잠재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힘 모아 다시 뛰자'라는 단합된 국민의 에너지로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새마을가죽의 도전정신과 헌신의 의지를 모아 뉴새마을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새마을운동은 현재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여 본연의 국민운동으로

기고

전기의 리와禍



이철호

인간이 불을 발견하면서 인류문명은 발달하기 시작했다. 추위를 이겨내고 음식을 익혔으며 도구를 만들어 내고 금속을 다루게 되었다. 불과 함께 인류는 전기를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더욱 화려한 문명발달의 꽃을 피웠다.

이제는 잠깐의 단전에도 생활의 불편을 넘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병원의 의료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될 정도로 전기는 현대사회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는 1879년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해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면서 실용단계로 접어들었다. 1887년 3월에 고공은 향원지와 건청궁 사이의 빈터에 에디슨 발전기를 설치해 한국 최초로 전기를 밝히게 됐다.

이후 호롱불에 의지하던 사람들이 전구를 사용하면서 자잘한 사건들도 자주 일어났다.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전깃불이 오랑캐의 것이기 때문에 전등 아래서는 제사를 모셔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았고 노인들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피지를 전구에 대기도 했다.

전차가 처음 운행할 때는 마치 어린이들이 연막소독차 뒤를 따라다니듯이 장안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차를 따라 동서정신없이 지달았다는 신문기사도 있다.

개화의 물결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온 전기의 불길은 한일합방과 6·25를 겪으며 암흑시대가 되는 듯 했으나 전려난 타개에 힘쓴 결과, 이제는 전국 전기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다.

그 용도 또한 각종 조명기구부터 TV, 라디오, 조리기 등 가정용에서 의료, 산업 전반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문명사회에 살면서 전기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는 단 몇 시간도 보낼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좋은 것을 그에 걸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치게 되면 그것이 복을 넘어 화가 되니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불과 전기 역시 예외가 없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발생

한 615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187건(30.4%)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았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적은 계절이기는 하지만 장마와 태풍 등으로 습도가 높아 누전이나 합선의 가능성이 크고, 높은 습도와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와 시민의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 화재는 절연 성능이 떨어지는 전선을 사용할 경우 과부하, 전선의 접촉 불량, 누전 등으로 발생하며 전기기구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방전되거나 전선이 눌린 경우에도 화재 발생의 요인이 된다. 모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전기를 바르게 사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전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정전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어 삶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전기로 인해 오히려 화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용의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가슴 따듯하고 몽글몽글 소재만 바라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너무 거칠고 저렴한 내용은 줄여 줬으면 한다.

▲김집숙·광주시 북구 충효동

드라마 막장 경쟁 심각... 거칠고 저렴한 내용 줄여야

최근 TV 드라마를 보면 마치 불륜경쟁을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일부프로그램은 불륜이나 이혼, 가정과, 복수, 납치를 여과 없이 방송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시청률을 위해 '막장' 경쟁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아침 드라마가 그렇다.

또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막말이 난무한다. 출연자들이 상대방을 놓고 "얼굴이 찌든다", "가슴이 너무 작다" 등 상식 밖의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한다.

나쁜 언어는 좋은 언어보다 전파력과 전

염성이 몇 배 강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쁜 언어일수록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언어들이 TV를 통해 방송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결국, 이 같은 언어들은 청소년을 자극하고 거칠게 만든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방송의 자극적이고 거칠며 폭력적인 소재, 그리고 막말은 청소년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짜증과 불쾌감을 준다. 그런 프로그램이 싫어 채널을 돌려도 전부 비슷한 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